

도파프로 정 0.25mg, 1.0mg, 2.0mg

(로피니롤염산염)

Dopapro tab 0.25mg, 1.0mg, 2.0mg

(Ropinirole HCl)

【원료약품의 분량】 이 약 1정(약 154.5mg) 중	
0.25mg : 로피니롤염산염(분말).....	0.285mg(로피니롤염산염 0.25mg)
1mg : 로피니롤염산염(분말).....	1.14mg(로피니롤염산염 1mg)
2mg : 로피니롤염산염(분말).....	2.25mg(로피니롤염산염 2mg)

【성상】

0.25mg : 흰색의 오각형 평육코팅정제
1mg : 녹색의 오각형 평육코팅정제
2mg : 분홍색의 오각형 평육코팅정제

【효능·효과】

1. 파킨슨 병 관련증의 치료
 - 파킨슨 병 관련증 치료에 단독 요법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레보도파와의 병용 투여는 on-off 현상을 억제하고 레보도파와의 1일 투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광동충에서 증상의 원발성 저지불완전후군(Restless Legs Syndrome)

【용법·용량】

1. 요통 및 내성용 고려하여 개인별 적정 용량이 권장됩니다.
- (1) 파킨슨 병 관련증
 - 1일 3회 약정제 1정씩을 필요시까지 위해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초기요법 : 0.25mg을 1일 3회 복용합니다.
 - 처음 1주일간의 치료 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1회 용량(mg)	0.25	0.5	0.75	1.0
1일 용량(mg)	0.75	1.5	2.25	3.0

유지요법 : 초기요법후 1주일 간격으로 1일 3mg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 치료효과는 1일 3-9mg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충분한 증상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증상악화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로피니롤 용량은 치료효과가 확실할 때까지 증량할 수 있으나 1일 24mg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레보도파이 보조요법으로 투여할 때 레보도파이 투여량을 전체량의 약 20%까지 서서히 감량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도파민 농도를 낮추는 로피니롤로 바뀔 경우 로피니롤 투여시에 주의증상에 대해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출처된 도파민 효능감과 마찬가지로 투여중지 시 로피니롤을 1주일 간격씩 대량 투여횟수를 줄이면서 서서히 중지하여야 합니다.

환소자와의 투여 : 파킨슨씨병은 소아에서는 병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약년의 로피니롤 사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바 없으며 소아에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2) 원발성 저지불완전후군

로피니롤은 1일 1회 취침 전 복용하여야 하며 취침 : ~3시간 전에 복용합니다.

초기요법(1주) : 초기 권장용량은 2일 동안 0.25mg : 1일 1회 취침 : ~3시간 전에 복용합니다. 이 용량에서 내약성이 양호하다면 투여 3일째부터 투여 횟의 마지막 날(투여 7일째)까지 1일 1회 0.5mg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

유지요법(2주부터) : 초기 요법 후 최적 치료반응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의 계획에 따라 1일 용량을 증량할 수 있습니다.

	2	3	4	5	6	7
1회 용량(mg)	1	1.5	2	2.5	3	4

하지않은증후군 환자에서 1mg/일 이상의 용량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의 투여가 유의하게 중단되었다면 위와 같은 용량조건에 의해 투여를 재시작 할 것이 권장됩니다.

2. 신손상 환자 : 경증 또는 중증의 신손상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50mL/min) : 초기 로피니롤 청소율이 변하지 않으므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증의 신손상(크레아티닌 청소율 <30mL/min)에서 이 약의 투여는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환자에서의 로피니롤 투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3. 간손상 환자 : 간손상 환자에서의 이 약의 투여는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환자에서의 로피니롤 투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4. 고혈압의 투여 : 로피니롤의 청소율은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감소하지만 고혈압 환자에 대한 용량은 환자의 임상적 반응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 1) 로피니롤의 발효 도파민 효능작용으로 인하여 증상의 심화단계 전환 환자는 주의하여 처치합니다.
- 2) 항고혈압약 및 항부정맥약과의 병용투여는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파민 효능약과 마찬가지로 병용투여시에 저혈압, 서맥 또는 기타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3) 중요한 건강질환 환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도파민 효능약으로 처치합니다.
- 4) 갑작스런 수면 발생 :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일상 활동(기계작업 등)을 하다가 졸음과 같은 극도의 졸음 또는 갑작스런 수면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졸음이 발생한 가능성이 주의해야 하며 이 약의 원본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까지의 병용 또는 수면 장애와 같은 위험 인자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졸음이나 일상 생활(예 : 대화, 식사 등) 중 졸음과 졸음과 극도의 졸음 또는 수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투여를 지속할 경우에는 운전이나 다른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5) 로피니롤 등 도파민 효능약으로 치료중인 환자에서 병적 도파민 수용체 등 강박행동을 포함하는 증후군(질병)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파킨슨씨병 환자에게 도파민 효능약을 고용량으로 투여 시 주로 보고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감압 또는 투약 중단시에 회복되었습니다.

2. 다음 환자에 투여하지 마십시오

- 1) 로피니롤 또는 이 약의 성분과 파킨슨 환자
- 2) 갑각류, 수산물 및 알레르기성이 있는 음식
- 3) 약은 용량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갑각류(조식) 불내증(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불내증(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락토스-갑각류(조식) 흡수장애(lact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됩니다.

3. 이상반응

가장 흔하고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발생빈도는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1/10, <1/10), 때때로(>1/100, <1/10), 드물게(>1/1000, <1/1000), 매우 드물게(>1/10,000, <1/10,000)로 구분되었습니다.

1) 파킨슨 병 관련증 임상시험

초기 투여 환자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구역, 졸음, 다리 부종, 부종, 두통, 두드림 및 실신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임상시험 보조요법에 사용 중인 부작용으로 운동이상증, 구역, 현기 및 현기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표 1 파킨슨씨병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경도	중하계 한강
단독요법 보조요법	중하계 질환, 환자
중하계	
단독요법 보조요법	매우 흔하게 졸음, 실신, 흔하게 어지러움(현훈 포함), 매우 흔하게 운동이상증, 흔하게 구역, 어지러움(현훈 포함)
중하계	
단독요법 보조요법	매우 흔하게 구역, 흔하게 부종, 수면, 소화불량, 변비, 흔하게 구역, 변비
심각	
단독요법 보조요법	때때로 기립성 저혈압, 저혈압, 흔하게 기립성 저혈압, 저혈압
경도	
단독요법 보조요법	중하계 말초성 부종(다리 부종 포함), 흔하게 말초성 부종

중하계 파킨슨씨병 환자에서 이 약의 초기 용량 적정 기간 동안 운동이상증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레보도파 용량 감소가 운동이상증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하계 효능약과 관련된 있는 체질적 저혈압 발생은 위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축기 혈압 감소는 뚜렷하였습니다. 증후군 저혈압 및 서맥이 때때로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2) 원발성 저지불완전후군 임상시험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환자의

병적(강박성) 도박은 소수의 환자, 주로 로피니돈을 포함한 도파민 효능약
을 투여받은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로피
니돈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일부 사례에서 도박의 병력
또는 도파민 효능약의 복용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2)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 대한 12주 임상시험에서 로피나를 투여군의 24% 이상에서 위약군보다 높은 비율로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 수(%)

영역	N	30대 n(%)	N	30대 n(%)
교육	117	27(23.1)	25	8(32.0)
노동	69	22(31.9)	64	20(31.2)
문화	48	17(35.4)	5	1(20.0)
여가/취업	38	12(31.6)	11	5(45.5)
운동	36	11(30.6)	20	6(30.0)
성·성(성)애	33	10(30.3)	27	8(29.6)
의료	32	11(34.4)	18	5(27.8)
종교	22	7(31.8)	16	5(31.2)
정치/법	19	6(31.6)	9	2(22.2)
사회	9	6(66.7)	17	5(29.4)
문화/취업	15	4(26.7)	8	2(25.0)
노동	15	5(33.3)	9	2(22.2)
성애	11	5(45.5)	19	3(15.8)
여가/취업	11	3(27.3)	7	1(14.3)
노동	9	3(33.3)	7	2(28.6)
문화/취업	9	5(55.6)	6	2(33.3)
의료	7	3(42.9)	4	1(25.0)
종교	5	2(40.0)	5	1(20.0)
정치/법	8	2(25.0)	1	0(0.0)
사회	8	2(25.0)	4	1(25.0)
문화/취업	8	2(25.0)	7	2(28.6)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취업	8	2(25.0)	2	0(0.0)
노동	8	2(25.0)	2	0(0.0)
성애	8	2(25.0)	2	0(0.0)
의료	8	2(25.0)	2	0(0.0)
종교	8	2(25.0)	2	0(0.0)
정치/법	8	2(25.0)	2	0(0.0)
사회	8	2(25.0)	2	0(0.0)
문화				

표 3은 일상식사에서 소비되나들의 일과 관계가 가동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소비나들 물품이 1.1% 이상에서 위약과도 같고 높은 비율로 보고된 이상반응을 제시하였었다. 하지만환자후군 환자에 대한 일상식사에서 소비나들의 안전성은 위약나들 7.2% 일일식사에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 함대 이런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는 7.6% 이상 수혈된 일상식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상반응은 상해, 통증 및 빈도보다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일상식사의 보고는 위약과 대비 호가 발생하고도 증경되어 매우 호환되나들의 보고는 위약과 대비 1.1%, 1.2%, 1.3% 분량하였었다.

표 3 학제통합형 수업에 대한 12주 관찰 시험에서 보고된 이점의 상관관계

[illegible]

1) 로피네프로 치료하는 동안 증상 확대(증상의 더 이른 발현, 강도 증가 또는 이전에 증상이 없었던 사지로의 증상의 확산) 또는 이른 아침 반동(이른 아침 시간에 증상의 재발)으로 설명되는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의 역발효 약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장기복용 임상시험에서 약제가 때때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발적인 성조표와 마찬가지로, 시판 주조산에서 극도의 질을 요구하는 갑각수류 수민 발생에 주로 파킨슨병 환자에서 매우 흔하게 보고되었습니다. 갑각수류 수민 발생을 경험한 환자는 졸음과 억제될 수 없는 두수민 이전의 증상에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매우 경우에 있어서 감광화되어 투여 중지 시 회복되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잠재적으로 긴장 작용이 있는 약물을 병용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도발인 장강제에 간접적으로 제 1형 저혈압을 포함한 저혈압이 로피네프린 투여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시판 주조산은 이 안의 시판 주조산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을 제시합니다.

표 4. 시판 후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대우 드림게	과민반응(두드러기, 혈관부종, 발진, 가려움증 포함)
정신과 장애	
때때로	망상, 편집증, 성병을 포함한 정신이상반응(환각 제외), 중독으로 전에 관련된 중독, 성욕과 다중을 포함한 현성욕증, 범죄적 반

연결점 의미
매우 중요하게 국토의 줄줄이 감싸잡은 주변 환경
 시간과 공간 동안 다른 도마뱀 호영학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줄줄이 감싸
 잡은 주변 특징이 주로 환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보였었기 때문
 감싸잡은 주변 환경을 정밀한 환경조건을 수반에 대한 통찰을 예견할 수 있
 으며 주변 이질에 어떠한 역할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용 가능
 한 정도에 대해서 감싸 잡은 데 약동 부여하지도 모두 허락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성숙에서 환경과는 잠재적 전쟁격조를 나타내는 반응약동을 무
 어면받았으니

द्वारा प्रेषित

본회 총회
대한노년회중앙회와 대한노년회기독교노년회협의회

5) 국내 시범과 보급된 이상반-

① 국내에서 카라진속병에 대한 관심서를 위하여 83년 동안 카라진속병 환자 4,3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조사결과 유해사태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18% (25명/4,352명)로 보고되었다. 환기율이 1.77% (7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구역 0.94% (4명), 소화불량 0.80% (3명), 운동장애 0.44% (1명), 복통 0.37% (1명), 착란 0.34%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강암체면 및 하저분암층군에 대한 선평천 일상사학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유해사료에 밝히 1도, 불만 5
레 부리 5레, 전전 4레, 불만 10리, 열, 중생 각 3레가 보고되
었고 기타 부물, 순지장이상, 편모, 미각모자, 비정장모자, 작
진, 모자, 레도코란, 안암부종, 발출석신, 석유부종, 토출물
이 보고되었다.

③ 국내에서 화석연료추출에 대한 제정사를 위하여 4년 동안 화석연료추출권 원가 747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찰 후 조사 결과 유해사체의 발견면적은 연안산악과 산간지역 5.88% (447.7477. 7.21)로 나타났다. 이중 연안지역의 일과한 개가 있는 화석출토율은 5.76% (417.7477. 6.02)로 보고되었다. 추 약물유해반응은 물면 1.74% (13례), 수역 1.34% (13례), 어지러운 1.07% (8례), 구토 0.80% (8례), 동물 0.40% (33), 죽음 0.40% (33), 감각이상 0.40% (33), 돌출 0.40% (33), 재증상 0.27% (24), 복통 0.27% (24), 피로 0.27% (24), 수면장애 0.27% (24)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증세는 유해사체는 중수인, 물면, 해안면, 어지러운, 개가 적은 수역 4.04% (347.7477)가 보고되었으며, 이중 중수인은 개가 적은 연안지역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해사체는 재증상 2례, 설사, 양구출증, 중수인, 복통배가자, 해안면, 기억 상실증 등 1례, 일과적 추락사 (0.70%)가 보고되었으며, 중수인인 증세이고 모든 연안지역의 연안지역을 제외한 수 없는 연안지역을 제외하고 나타났다.

중·고대 시인 조·조작가와 문인 자발적으로 모교된 유해사료 중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료로 위장자재 공개할, 소변변색, 수로가 각 1년씩 모교되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규모의 연구결과 단으로부터 모교되었으므로, 그 빈도 및 약의 안전관제중 주성분까지도 되었습니다.

4. 일반적 주의

1) 어떤 용량단위에서도 국도의 줄음이 발생할 경우 용량을 줄입니다. 특히 과속단속으로 감량 조처를 정치적으로 용량을 증명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2) 주로 피천준의 별명 가진 환자에서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작스런 수면 또는 낮잠 동안의 국도의 줄음이 드물게 발생할 경우와 있을을 환자께 알려주어야 하며 운전 조치는 가해 조차 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낮잠 동안의 국도의 줄음 또는 활동중의 수면 발생이 나타날때만 이러한 경계증상만 줄음이 해결될 때까지 운전을 하거나 운전상 각종 승력으로 인해 시간상의 한계에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즉,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주의시킵니다.

3) 이 약은 신장기능장애에 의한 정액불능증 또는 아차상 하지불안증 후련(예: 신부전, 권결염성 빈혈 또는 임신에 의한 경우)의 치료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때때로 서맥과 관련 있는 실신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치
료는 시작하지 4주 이상 경과 후 호전 발생하였고 최근의 유라손

5) 도파민 효능약은 통풍증과 기간동안 전신 할합조절 손상으로 기
림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파민 효능약을 투여
받고 있는 파킨슨씨병 환자들은 기림성 저혈압에 대한 증상과 징
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런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

사기능 발달의 지연이 관찰되었습니다

5) 환자들은 이 약을 복용할 때 한약(비합리적인 시야, 소리 또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킨슨씨병이 있는 고령자에서 젊은 사람보다 위험도가 더 높으며 알-도파와 병용하거나 이 약을 곁으로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7) 로키니콜로 치료하는 동안 증상 확대(증상의 더 이른 발현, 강도 증가 또는 이전에 증상이 없었던 사지로의 증상의 확산) 또는 이는 아직 발현 안되었던 이형성치에 증상의 재발)으로 설명되는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의 역설적 악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로키니콜로 치료의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용량 조절 또는 치료 중단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8) 레보도파로 치료중인 파킨슨병환자에게 이 약을 부여했을 때 레보도파에 의한 도파민성 부작용이 증강될 수 있고 기존의 운동이상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레보도파를 감량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작용

1) 신성이완의 몇 가지리드 또는 에르클로프라이드와 같은 증추에 작용하는 도파민 길항제는 코파나올의 효과를 줄일 수 있으므로 코파나올과의 병용투여는 피합니다.

2) 물레리들은 밭초에 작용하는 도파린 결합제로 밭초 도파린성
상반응을 조절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광 조성이 필요한 레보도
파 또는 물레리도파의 약한 비대칭적 상호작용을 일컬었습니다. 입
방적으로 파면은 비평면적으로 사용되는 입방체의 상호작용은 없
나 실제로는 비평면적으로 작용하는 입방체로 비평면적으로 작용
합니다.

3) 다산실을 두어 반교 있는 파킨슨씨병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용당 조절을 권유하고 있는 실용적임을 알겠습니다.

4) 이 많은 시토코겐을 P450 효소 CYP1A2에 의해 주로 대사됩니다.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이환에서 시토코겐 대사는
 있는 코피니딘의 Cmax와 AUC를 각각 60%, 84%까지 증가시켰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효소의 존재(사지루페루산
 인, 에코사신, 플루복사신 및 시메티딘)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
 으므로 파킨슨을 투여중인 환자에서 CYP1A2를 억제하는 것으
 로 알려진 약물들을 투여하거나 중독을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
 니다.

5) 파킨슨씨병 환자에 대한 로피니돌과 대표적인 CYP1A2 기질인 대오릴린의 약물동태학 상호작용 시험에서 로피니돌 또는 대오릴린의 약물동태학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CYP1A2 기질 약물의 병용투여에 따른 로피니돌의 약물동태학적 변화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6) 호르노내재요법(HRT)을 받고 있는 폐경기 여성들 80명(20-39세)의 에스트로겐(성호르몬) 결합형 에스트로겐) 부위 환자에서 루비니올의 혈중농도가 증가해 평균 33%(25%-35%)까지의 루비니올 혈중농도를 감소시켜 관찰되었다. 이와 호르노내재요법(HRT)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루비니올 부위는 일반적으로 시화할 수 있으나 그러나 루비니올을 부여하고 있는 동안 HRT를 중단시킨 뒤 시화할 수 있는 유전적 결함은 관찰된다.

7) 알코올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없습니다. 술
후에 작용하는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은 알코올과 로피

8) 좁은 범위 내의 경우 흡연에 대한 흡연의 영향을 조직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 흡연에 의해 CYP1A2가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흡연을 코카인의 철수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코카인의 투여기간 동안 흡연을 중단하거나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성이

6. 일본 및 수유부에 대한 투자

1) 입부에 계속 부여되는 자극이다. 설탕을 사용한 동물실험에서 본 자극물의 약리적 작용 (프로락틴 분비 억제)에 의해서 배가 배가 차가 되며 불임 유산, 유즙 분비역전될 수 있다) 동물실험에서 임신 랫드에게 모체수유 용량으로 하루 40mg/kg 의 용량에서 시작, 60mg/kg (내이제서)의 최대용량 AUC의 약 3배)에서 태아내수출 30mg/kg (X-5)에서 태아수출 증가, 20mg/kg 의 용량에서 태아 기형(호르몬 기능)에서는 발기부 기형, 15mg/kg (X-5)에서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기형과 뒷다리 척골의 골화 지연을 유발하였었습니다. 120mg/kg (X-5)에서 랫드에게 임신형성 효과는 없었습니다 20mg/kg 의 용량에서 호르몬의 균형은 유지되고 있다

중추는 없었습니다. 토끼에서 토끼나 쥐와 비교하면 근육의 병증중에서
(10/250mg mg/kg) 기형의 빈도 증가(주로 손가락)는 발견되
기까지 나타내었습니다. 임부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었습니다.
2) 유독 분비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유독부에서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다. 동물시험에서 수컷의 랫드의 유독에서 토끼나 쥐가 분비되는
것은 나타내었으며 신생아의 체중 증가가 감소 신생아를 잃는

18세 미만의 환자에서 로피리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연령 범위의 환자에서 로피리돈의 사용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피해소비용 치료과정 중에 사고에 의해 또는 의도적으로 처방량 이상의 모르핀을 복용한 환자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보고된 사망률과 사망률은 각각 43.5mg (62 mg)에 있었습니다. 1일 24mg 이상 이 투여된 환자에서 도파민성 시지각 증후군 흔하게 보고되는 이상 반응(구역, 어지러움)과 함께 시지각 현상, 환각, 말라돌, 불쾌감, 발열, 무도병, 두근거림, 무릎을 꿇고 앉을 등의 증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투여된 1일 24mg 미만 투여환자에서는 잘 알려진 증상은 양으로 과다 투여된 환자에게서 구토, 기침, 설사, 피로, 실신, 환각,두진증상, 실신, 운동이상성, 초조, 가슴통증, 가렵, 설하, 졸음 그리고 혼돈 상태가 추가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약을 과량투여 시의 증상은 위반식으로 도파민성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장의완해 또는 메토클로프라마이드와 같은 도파민 길항제의 적절한 투여에 의해 완화될 수 있으며 대증요법 및 심혈관계 모니터링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9.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3) 이 같은 견조한 자세는 200년 이하로 보관하십시오.

기타

11

치와 성부용량(A/L)에 대한 3개의 최대 용량용량에 대하여는 100%는 50mg, 250mg, 750mg의 전신 A/L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즉, 100%는 50mg A/L 이상의 용량에서 모든 Leviding과 전신용 용량의 중간 크기 나뭇잎을 나타내며 이러한 소인은 팻트에서의 극도로 낮은 비율의 영양에 의해 것으로 사람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는 50mg A/L에 근거한 최대 용량용량과 100%는 50mg A/L에 대한 3개의 최대 용량용량에 대한 3개의 용량용량의 용량용량에 근거한 용량용량용량의 중간 크기 나뭇잎을 나타내며 이러한 소인은 팻트에서의 극도로 낮은 비율의 영양에 의해 것으로 사람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는 50mg A/L에 근거한 최대 용량용량과 100%는 50mg A/L에 대한 3개의 최대 용량용량에 대한 3개의 용량용량의 용량용량에 근거한 용량용량용량의 중간 크기 나뭇잎을 나타내며 이러한 소인은 팻트에서의 극도로 낮은 비율의 영양에 의해 것으로 사람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연이월신, 로피나니움은 유전자 변이 및 면역체 손상에 대한 분석에서 유전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3) 수대용, 유제 잔류물 및 폐 망간이 함유 매트에서 투여한 때 로피나니움은 10mg/kg 이상의 경구 용량에서 작성 결과에 약하여 나타내지. 이러한 영향은 포비나니움의 프로락틴 억제 효과의 한 가지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프로락틴이 어떤 호르몬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의사는 이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임신 초기와 프로락틴의 증가(임신 0-8주) 동안 10mg/kg 로피나니움은 투여하면 1.5 배에서 10 배까지 100mg/kg의 로피나니움의 경구 투여를 얻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주 동안 15mg/kg의 용량으로 투여한 수컷 랫드에서 수태율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장방법】 25℃ 이하 서늘기밀용기

【표절다위】 21컷

“약국 등의 개설자에 한하여 사용기관이 경각되었거나 면제. 반면, 유
손권 의약품으로는 무작음 등은 분석 개개당부(수선자 부담. 080-555-
7171)에서 상담 및 교환, 교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조과정과 관련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문의사항은 책임감장 품질경영본부(전화: 050-
333-6312)로 연락바랍니다.”

작성일: 2010. 10. 9
11-B-0000-KA-01

*이 첨부문서 작성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joelplasm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정령

(주)유하양행

출판: 출판 청취권은 만화 807.1

표준이력 및 부대원

대한민국 정부

세일학舎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곡동 745-1

공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성면 근곡리117-